

8/12/18

설교 제목 :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깊은 아픔과 사랑

전하는 이 : 김순배 강도사

말씀: 호세아 11 장 1-11 절

- (호 11:1)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 (호 11:2)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 (호 11:3)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 (호 11:4)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 (호 11:5)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 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 오기를  
싫어하니 앗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 (호 11:6)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 (호 11:7)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 (호 11:8)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 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 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절관주** 렘 9:7, 마 23:37, 창 14:8,
- (호 11:9)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네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네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절관주** 사 55:8, 미 7:18
- (호 11:10)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절관주** 사 31:4, 사 42:13, 시 2:11
- (호 11:11)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 같이, 앗수르에서부터 비둘기 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절관주** 사 11:11, 사 60:8

하나님께서서는 3장에서 호세아 선지자의 결혼 생활을 보여 주셨습니다.

호세아(Hosea)는 여호수아(Joshua), 예수(Jesus)와 같은 말로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고멜은 끝, 마지막, 더 이상 희망이 없고 절망인 상태라는 뜻으로 죄로 끝난 인생을 의미합니다. 죄로 인해 더 이상 소망이 없어져 절망에 빠진 고멜을 구원자인 호세아가 찾아와 아내로 맞이하고 사랑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고멜은 과거의 못된 행실을 버리지 못하고 집을 나가 다른 남자들을 쫓습니다.

참으로 배은망덕한 소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고멜을 다시 찾아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시고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값을 치르고 고멜을 다시 찾아 데리고 옵니다.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는 고멜입니다.

그런데 그 한심하기 짝이 없는 고멜이 바로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본 장에서 고멜처럼 하나님을 배신하고 바알을 쫓고 우상을 섬긴 이스라엘을 종국에는 다시 부르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10 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당신을 배반한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심판을 경고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자 이스라엘을 향해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라도 그 심판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기 위한 심판이 아닙니다.

오히려 멸망의 길로 빠져 가는 그들을 살려내기 위한 징계입니다.

자식이 망하는 길로 빠지는데 내버려 둘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두들겨 패서라도 흥하는 길로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종국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고 회복시켜 살려내실 것입니다.

심판을 받아 바벨론과 앗수르 포로로 잡혀간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완전히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여 택해 장자 삼았고 구원시켰음을 말씀하십니다.

(호 11:1)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아직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무엇을 이루어 낼 수 없는 상태 곧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불러냈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내신 것이 그들이 강하거나 잘나서 불러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신 7:6)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신 7:7)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신 7:8)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장자 삼고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았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이었고 아브라함과 믿음의 열조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했기 때문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오직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은혜받은 자다운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내 아들’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리켜 내 아들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이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아들이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사랑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 처음으로 이스라엘을 가리켜 내 아들, 내 장자라고 부르셨습니다.

(출 4:22)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출 4:23)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 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 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부르면 부를수록 하나님을 더욱 멀리 하였다고 하십니다.

(호 11:2)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은 완악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바른 길로 가게 하려고 부르면  
부를수록 더욱 멀리 떠나갔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이미 바알과 우상으로 가득차 있어 하나님을 의식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부모가 자식을 기르듯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셨으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묵살하고 그의 품을 뛰쳐 나가고 말았습니다.

(호 11:3)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을 사랑의 줄로 이끌고 그들의 멍에를 벗겨 주시고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다고 하십니다.

(호 11:4)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주님께서 우리의 멍에를 벗겨 주시고 이끌어 주시지 아니 하시면 누구도 주님께로 나아올 수  
없습니다.

(요 6:44)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렇지라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호 11:5)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 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 오기를  
싫어하니 앗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호 11:6)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호 11:7)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인간이 이성을 과신하고 하나님을 의지 않은 결과는 실패일 뿐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오히려 애굽을 의지하기로 계책을 짰습니다.  
참으로 완악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심으로 심판하십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앗수르에게 멸망당할 것을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반전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놓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호 11:8)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 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 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

(호 11:9)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네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함께 불살라진 근처의 성읍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소행대로 하자면 이스라엘은 아드마와 스보임처럼 유황불에 불살라져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불쌍하여 마음이 격해져 긍휼이 불붙듯 하기에 에브라임과 이스라엘을 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코 내 사랑하는 아들 이스라엘을 이방 나라들과 같이 취급해 버릴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에게 맹렬한 진노를 발하지 아니할 것이며 멸하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아픔이 느껴집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사자의 표호 같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다시 돌아 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호 11:10)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어 오되

(호 11:11)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 같이, 앗수르에서부터 비둘기 같이 떨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자처럼 불러 모으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자처럼 소리를 내서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시면 하나님의 징벌로 온 세상에  
흩어졌던 당신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서쪽에서, 애굽에서, 앗수르에서 온다는 것은 세계 각 지역에서 오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 마지막 날에는 세계 각 지역에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또한 주님 오시는 날 우리 믿는 영적 이스라엘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새처럼 비둘기처럼 약하여 두려워하며 떨어면서도 한편으로는  
즐거워하며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친히 예비해 놓으신 집에 거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건국된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주변 이방 나라와 다른 모습을 보여야 했습니다.

우상 대신에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위기를 믿음으로 극복하며 주변 이방 나라에 하나님을 알리는 사명을 부여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인간적인 만족과 세상 안일에 빠져 하나님을 배신하고 주변 이방 나라와 다름없이  
아니 오히려 그들보다 더 타락한 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심판을 받아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바라보아야만 하나님의  
가슴은 찢어질듯이 아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결코 버려두실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불쌍해서 긍휼이 불붙는듯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죄값을 치르기를 기다려 징계가 끝난 후 그들을 다시 불러 품에 안아 주시기로  
작정하십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도 아니고 죄를 짓지 않은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단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은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 받은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요?

혹시 이스라엘과 같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보다도 더 못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을 경우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 부모님들이라서 자식을 징계하고 자식이 징계받는 그 모습을 지켜 보아야하는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죄로 인해 심판하고 죄값을 치르도록 해야만 하는 그리고 벌로 인해 고통받는 우리의 모습을 지켜보아야만 하는 하나님의 가슴은 찢어질듯이 아프십니다.

그렇다고 놓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악에서 돌아서지 않아 종국에는 멸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아픈 가슴을 안고 때를 기다리시다가 결국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해 내실 것입니다.

그 때 우리는 새 같이 비둘기 같이 두려워 떨며 또 즐거워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죄로 인해 죽을 수 밖에 없는 우리가 불쌍해 긍휼이 불일듯 일어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땅에 보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긍휼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 하나님의 품에 안겨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어 하나님의 품에 안겨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